

데스크시각

김일환



“스무 살이 넘은 아가씨를 이렇게 집에 방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도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면 충분히 사회 적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을 위한 종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사회복지사들과 지적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몰이해와 자독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다.

지적장애인.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일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정신박약아 또는 정신지체인이라고 했으나 이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해 지적장애인으로 대체되었다.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IQ)의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제1급의

지독한 편견과의 전쟁

경우는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제2급은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작업은 직업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제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고등학교까지는 특수학교든 일반학교

든 교육시설이 그들을 수용하고 가르치지만 학교를 졸업한 성인 지적장애인은 갈 곳이 많지 않다. 집안에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가족들의 보호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활동을 시키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퇴보가 빠르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한 결과가 무의미하게 된다. 또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면 바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주간보호센터다. 광주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주간보호센터는 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 있다. 20여 평 정도 되는 허름한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20여 명 남짓의 사회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로 하루 30여 명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훈련에 힘쓰고 있다.

사람 사는 곳에 어찌 이야기가 없는 곳이 있었는가 만은 이곳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눈물겹다.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는

한마디로 전쟁이다. 재활교육을 받는 지적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이기 때문에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휴식은 사치고 점심도 제때 못할 때가 많다. 야외교육이라도 할라치면 일대일 관리를 해야해 보통 예를 먹는 것이 아니다. 쏟아지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무시는 덤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기권을 주장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교육에 열을 다하고 있다. 컴퓨터, 비즈공예, 요가, 축구, 마라톤, 등산 등 직업훈련과 운동치료를 병행, 한걸음, 한걸음 사회를

그들에게 희망을許하라

향해 나아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과는 인내심 속에서 나온다.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선수가 있는가 하면 몇몇 장애인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또 몇몇은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보람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내 손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운동치료를 했던 이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그들에게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넓은 장소와 보다 나은 교육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싶을 뿐이다.

작년 말 그들에게 기쁘고도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 생겼다. 사정은 이렇다. 녀너지 않은 살림이지만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 외곽에 그들만의 보급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땅도 매입하고 설계도 끝났다. 곧바로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당당한 이웃이고 싶어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다. 마을주민들이 공사를 막아서고 나선 것이다.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통량이 늘어나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협회 사회복지사들과 가족들이 “전염병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비(NIMBY : Not In My Backyard)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을주민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적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한시가 급하다. 그들에게는 새 보급자리가 희망이고 미래다. 사회적 약자이니 동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웃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빨리 전달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시설

한전, 혁신도시 부지매입 미루는 이유 뭔가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주혁신도시의 ‘몸통’이나 다름없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예정된 행보 때문이다. 최근 한전은 혁신도시에 들어설 본사의 부지매입을 우선순위에 추진할 방침을 세워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민약 한전의 방침대로 올 하반기에 부지매입이 결정된다면 2012년 혁신도시 완공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의 핵심 시설인 한전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입주 예정된 여타 공공기관의 이전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5년 6월 나주이전 확정 이후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커녕 사유 건설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한전의 ‘시간 끌기’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흔들려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부지매입에 필요한 169억 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한 이상 하반기로 미룰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지매입은 지난해 상반기에 매듭을 짓기로 했던 만큼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반기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 있는 일이다.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꿈의 프로젝트이건만 이명박 정부의 오라카라 행보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수도권 집중’, ‘지역특화발전’이란 정책을 쏟아내 혁신도시 사업을 끊임없이 흔들던 것이다.

한전은 조속히 부지매입을 서둘러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주혁신도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월급 깎이고 물가 뛰고... ‘이중고’ 본격화되나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오르며 물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효과가 반영되는 3월 이후는 물가급등마저 우려된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른다면 가계는 더욱 피해해질 수밖에 없다.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 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만이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0.7%로 지난해 7월(0.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부문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5.4%, 공업제품이 5.0% 각각 오르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문제는 환율이다. 환율이 현재와 같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물가불안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의 불안정이 수입 안제품과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덩달아 소비자 물가도 요동치

고 있다. 특히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싸고만 여겨졌던 중국산 제품값이 올라서인 가계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증가가 제한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물가까지 올라가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민 가계로서는 월급은 깎이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소비자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감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어 환율이 단기 내 안정되기는 어려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율 안정과 함께 공공서비스 요금 억제, 유통구조상의 물가상승 요인 제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만은 잡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 불엔 씨감자 한 톨에도 회가 동했다/햇것을 보듯 빈 눈에 어른거리던/보랏빛 구름...”

시인 이경의 ‘자운영꽃을 아십니까?’라는 시의 일부다. 시에서 ‘보랏빛 구름’은, 남도 들녘마다 지천으로 피어있는 자운영꽃에 다름 아니다.

그 옛날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기던 시절, 자운영의 어린 순은 ‘나물죽 우어 햇배 채우(자운영꽃... 일부)’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뿌리째 달여 해열·해독·종기·이뇨 등 약용으로도 긴요했던 게 바로 자운영이다.

1960년대까지 들녘에서 눈에 자주 띄다가 이후 사라졌던 자운영이 ‘녹비(綠肥)작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썩힌 거름인 퇴비와는 달리 녹비는 녹색식물의 줄기와 잎을 썩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거름을 말한다.

자운영은 질소·인산·칼륨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퇴비에 비해 무기성분이 풍부하고 질소성분은 7배에 가깝다. 녹비를 쓸 경우 땅심을 돋우고, 미

생물의 활동을 도와 농작물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 질소질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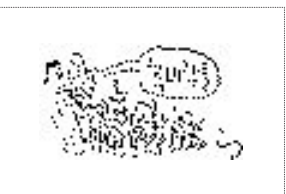
게다가 탄소동화작용으로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까지 줄여주는 ‘담’ 역시 만만치 않다. 미상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풀이 바로 자운영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자운영 농사에 뛰어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 우리 농업의 화두는 ‘친환경’이다. 친환경 브랜드야말로 ‘돈 되는 농업’의 보증수표로 통한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은 1천㎡(300평) 당 340kg에 육박해 경제선진국의 평균치보다 3배

자운영의 재배면적을 늘려 친환경 농업에 매진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보다 중국이 원산인 자운영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은 더더욱 절실하다. ‘그대의 관대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자운영 효과를 기대해본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자운영



기고

김용익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유치라는 145만 광주광역시민의 숙원을 안고 지난 2월 15만 여명의 범시민지원단이 발대식을 가졌다. 대회 유치 계획에 대한 정부 최종 승인에 이어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됐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유치위도 지난 대회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부족

다보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전략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도시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2012년 대구 세계육상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 따라오는 직접적인 수입 창출은 물론 도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금전적인 환산할 수 없는 부가적 이익이 크

U대회 유치단에 아낌없는 격려를

라 구성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비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U대회는 세계 17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의 대학선수들이 참가하여 10여 일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육상대회 등과 어깨를 겨루는 비중 있는 행사다.

지난해 5월 2013년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깝게도 개최지 선정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FISU 집행위원들의 정치적인 특성에 따라 러시아 카잔에게 유치권을 빼앗긴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의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내

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범국가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유치 열기다. 다행히 대회 유치위원장으로 부산지역 4선 의원이자 명예 광주시민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선출돼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앞장서서 민주당과 기타 정당, 중앙정부, 체육계, 학계, 경제단체 등 범국민적인 유치지원단을 구성해야 대회 유치를 확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범시민지원단과 145만 광주시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회 유치단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5월 23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2015년 하계U대회 광주 유치라는 남보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장>

의심스러운 사이트엔 개인정보 제공 말아야

주변에서 인터넷을 악용해 사기 치는 수법이 자주 일어난다.

은행들도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인터넷상에서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피싱 사이트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연례행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피싱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은행 사이트 주소로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 위장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각종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 가는데 기존 피싱 사이트가 이메일로 은행을 사칭해 접속을 유도한 것에 비해 아예 은행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대담함도 보인다고 한다.

피싱 사이트는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여러 가지 금융정보를 한 화면에서 모두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의심되는 접속 사이트는 정보 입력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의심스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소중하나 자신의 정보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기고

김중원



소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의견이나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 통함’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잘 소통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특히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소속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당 간뿐만 아니라, 같은 당내에 서로 기대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금전적인 환산할 수 없는 부가적 이익이 크

상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외국국적의 관리들을 추방하도록 하는 축적령이 내려졌을 때 이야기다. 당시 초나라 국적의 이사라는 관리가 추방당하는 입장에서 황제에게 간언하는 간혹객이라는 황제로 하여금 축적령을 철회하도록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이야기는 황제가 추방되는 지방 관리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여 정당 간뿐만 아니라, 같은 당내에 서로 기대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금전적인 환산할 수 없는 부가적 이익이 크

소통이 잘되는 사회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중국식당에서 홀과 주방 간의 의사소통으로 우동 세 그릇과 자장 네 그릇을 주문하면 ‘우짜, 우짜’라고 하여 주방에 전달한다. 이와 같은 소통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상호간에 교감이 이루어져 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손짓 만으로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신세대들 간에는 ‘ㅋㅋ, ㅎㅎ, 쌤, 얼얼한’ 등의 인터넷 용어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의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만을 위하여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BC 237년에 중국 진나라에서는 황제와 지방 관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회조직의 기초단계인 가정에서부터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순직하신 고위공무원의 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한 남편의 직장장사에게 하루 30분씩은 꼭 가족과 이야기하며 보내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대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가족구성원들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조직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호간에 경청하고 배려하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조직에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회는 희망과 꿈을 갖고 밝아지며,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금호고속 부장>

입국시에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여행할 때 국제공항에서 우수한 외국 제품을 면세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만 이러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다. 그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시 양산 가득 구매한 면세품을 합들게 들고나가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현지에서 계속 들고다니다가 입국시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면세점은 법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내국인도 출국할 경우 외국인과 같이 면세점 구매가 가능해 많

은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갈 때 거의 필수코스라 불리는 곳이 됐다. 즉 애당초 외국인 이용을 위해 면세점을 설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공항 면세점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일반 수퍼마켓과 다를 것 없으므로 이제는 현재 같은 불편한 방식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그 방법으로써 입국장 내에도 출국장과 같은 면세점을 설치하면 된다. 출국할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에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던 현재 같은 불편함은 완전 해소될 것이다. ▲유진규·여수시 신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34	문 회 상 황 부 2200-661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1	어 려 문 제 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1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4267 >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